
5분 자유발언

- 보행권 중심의 보도 높이 개선과 도로 물 고임 방지시설 확충 -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성읍 도심의 도로와
보도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읍내 곳곳에서는 보행로와
차도 사이의 높이 차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작은 단차 하나가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도
보도 높이 차이는 사고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작은 턱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넘어짐과 다침,
그리고 평생의 불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면 도심 곳곳에서
물 고임 현상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서외오거리 회전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은
빗물이 잘 빠지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공무 국외 출장 중,
스콜성 폭우 상황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퍼붓는 폭우 속에서도
도로와 보도에는 충분한 배수구와
측구가 설치되어 있어
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침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스콜성 폭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낮설지 않은 기상 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집중호우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는 “예외적인 상황” 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 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도
기후 변화에 대응한 도시 인프라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사진 1)

첫째, 보행로와 차도의 연결을 매끄럽게 하고
경계석은 도색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높이를 낮추기 어렵다면
경계석의 경사를 완화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2)

둘째, 도로와 보도에는
충분한 배수구와 배수 파이프를 설치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은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효과를 확인하고 보완한 뒤 확대한다면
예산은 절약하고
군민 체감 효과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도로 옆 화단이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보도 구획선을
자전거도로로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심의 도로와 보도는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길이자 안전의 길입니다.

아이들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길,
학생들이 자전거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길,
어르신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길,
휠체어나 유모차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단차 하나를 고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성읍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큰 출발점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은 한 번에 전면 시행하기보다
보행량이 많은 도로, 학교 주변,
상권 밀집 지역부터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의드립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이 곧
고성의 미래입니다.

군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